

모더니즘을 통해 구현된 패션의 공간특성에 관한 연구

김혜영* · 김유연**

성균관대학교 의상학전공 부교수* · 성균관대학교 의상학과 석사졸업**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Modernistic Space formed in Fashion

Hye-Young Kim* · Yoo-Yeon Kim**

Associate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Sungkyunkwan University*

Master, Dept. of Fashion Design, Sungkyunkwan University**

(2004. 7. 1 투고)

ABSTRACT

The objective of the study is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modernistic spatial design and, based on the understanding, to interpret fashion in terms of its spatial relationship with society, culture and human body, thereby looking into unique spatial characteristics fashion ha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include :

First, the rational space emphasizes geometric symmetry and harmony among each of design elements and is expressed by pursuing a perfect formative beauty that indicates an eternal formal beauty of a physical space. In addition, functional beauty is also pursued, making clothing convenient for activities. Second, the abstract space is characterized as a kind of purity by emphasizing simple patterns and colors and materials of purity for clothing, and it is sometimes expressed as being extremely abstract so that human body can be shown to be distorted. Third, for the uniform and neutral space, mass-production and production at home was made possible with clothing of simple patterns and of standard. In addition, it showed a tendency to become blurred in gender distinction for clothing with women wearing men's clothing, or borrowing design elements from men's clothing. Forth, the space as means of domination and control was shown to be segmented based on place, function and purpose. In addition, control on physical beauty was shown by promoting slim figures that are suited for lineal silhouette of clothing and circumstantial restriction on clothing occurred during war, serving to limit the styles of and purchase of clothing.

Key words: space(공간), modernism(모더니즘), spatial design(공간디자인)

I. 서론

공간이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이자

그 삶의 흔적이 인류를 통해 지속적으로 구현된 역사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인간사회의 커다란 변혁은 공간이라는 매개물을 통해 발산과 발전

을 거듭해 오늘날에 이르렀고 디자인과 건축분야는 공간을 매개물로 표현되고 발전되어 온 대표적 표상물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인간이 창조해온 문화와 예술은 공간 속에서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지속적인 활동이라는 점에서 공간 활동 즉 건축 활동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특히 여러 시각예술들 속에서 건축과 복식은 바로 인체를 바탕으로 이룩된 공간구성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인간이 생활하고 살아가는 공간을 창조한다는 측면에서 건축은 거주 공간을, 의상은 인체가 거주하는 최초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건축과 복식은 이러한 인체를 통한 공간인식의 과정에서 유사한 문화를 형성하지만 공간을 지각하고 인체를 규정하는 방식에 따라 그 해석을 달리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간구성의 유사성과 함께 건축과 복식만이 가지는 공간을 통한 고유한 표현특성과 해석을 형성하는 것이다.

공간을 주제로 한 복식의 선행연구로는 최인순¹⁾, 김정숙²⁾ 그리고 이연주³⁾의 것이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진 공간의 개념은 동작에 따른 인체와 의복의 공간변화나 인체와 의복사이의 공간 형태에 따른 실루엣을 연구함으로써 시각적으로 감지되는 형태적이고 물리적인 개념으로 복식에 접근 시도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공간이란 인간과의 상호작용이 공존하며 삶을 형성하는 '장(場)'으로서의 개념으로 물리적인 공간의 연구와 함께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새로운 공간개념인 '인간 거주'의 질적·정신적인 공간으로 복식을 파악하고 공간의 상호관계를 고찰하는 것이 요구된다.

한편 21세기는 해체주의(Deconstructivism), 뉴모던(Neo Modern)을 비롯한 디지털정보화 시대라는 새로운 공간패러다임 등의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시대적 흐름을 규정짓고 모색하려는 시도들이 한창이다. 그러나 새로운 공간패러다임의 연구에 앞서 이러한 공간의 근간이 되는 모더니즘 공간의 역사적 성찰을 통하여 공간의 흐름을 이해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오늘날의 패션역시 19세기 말 여러 예술양식의 전개와 혼재 속에 발생하여 20세기 전반부의 모든 조형적 특성을 특정한 스타일로 정립했던 모더니즘에 대한 회의와 대안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때문에 모더니즘 공간에 나타난 패션을 살펴봄으로써 오늘날의 다양한 패션현상의 모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오늘날의 공간패러다임 형성의 기초가 되는 모더니즘 공간디자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복식에 형성된 사회, 문화, 인체와의 공간관계를 해석하여 복식이 가지는 고유한 공간특성을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예술상에서의 모더니즘이 시작된 20세기 초 특히, 1910년대는 이상적인 여성의 체형이 세기말의 S자 형으로부터 더 수직적인 형태로 단순화와 기능화를 나타내었다. 이에 복식의 모더니즘적 공간특성은 패션에서 모더니즘의 특성이 나타나기 시작한 1910년대에서 포스트모더니즘으로의 이행이 시작되는 1960년대로 한정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공간개념에 대한 고찰

1) 공간의 개념

공(空)이란 하늘과 땅 사이와 같이 비어 있으면서 계속 퍼져가는 성질의 것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것인 동시에 꼭 차있는 물질의 본질적 형식이기도 하다. 간(間)이란 풀이하면 문(門) 사이로 햇빛(日)이 비친다는 것이니 속이 빈 사이의 틈을 의미하지만, 바꾸어 말하자면 도량의 개념, 즉 공간에 있어서의 거리를 뜻한다. 기둥과 기둥 사이를 뜻하는 주간(柱間)이나, 때와 때 사이를 의미하는 시간(時間)이 그 예이다.⁴⁾ 따라서 공간은 문자 그대로 풀이해보면 '비어있는 상태로 인하여 생기는 간격이나 틈'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간개념이 예술적인 인식대상으로서 등장한 것은 19세기 후반 이후이며, 그 시대의 세계관을 형성한 근대 과학과 철학적인 공간관을 바탕으로 커다란 발전을 거듭할 수 있었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는 공간을 모든 장소의 총화로 해석하는 한편, 방향성이라는 특성과 함께 동적인 장(場)으로서의 장소이론을 제시하여 고대의 세계관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뉴턴(Newton)은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실재만을 진실로 간주했던 플라톤(Plato) 이후 유클리드기하학에 바탕을 둔 절대적 공간개념의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⁵⁾ 우주를 기계로 인식했던 뉴턴식 이론들은 수학적 정량화를 통한 논리적인 해결방법을 발전시켰고 결국 모더니즘의 과학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고전물리학 개념은 아인슈타인(Einstein)이 정립한 상대성 이론에 의해 4차원의 시공 연속체(space-time continuum)개념으로 인식이 변화됨으로써 건축을 비롯한 문화, 예술전반에 새로운 시공간 개념을 제시하였다.

한편, 중국의 선승 승조대사(勝肇大師)는 그의 저술 조론(肇論)에서 '불질은 본래 공(空)한 것이며

과거와 미래가 없고 천류(遷流)하지도 않으며 동요하지도 않는다'는 물질론을 제시한바, 그가 말하는 공(空)의 성질은 오히려 형태가 있는 사물의 본바탕이 되는 것이다.⁶⁾ 따라서 서양의 공간관이 이원론적이거나 대상(對象)적인 사고를 가지고 발달한 반면 동양에서는 일원론적이고 융합(融合)적인 사고가 발전해 온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공간개념이 큰 변화를 겪지 않았던 동양에 비해 서양은 인간사를 통하여 끊임없이 변화를 거듭하였다.

2) 공간인식과 형태

철학과 자연과학에 근거한 공간개념들을 인간이 쉽게 인식하고 실현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공간은 인간이 가지는 지각능력의 한계로 그 자체로서는 인식될 수가 없고, 실존적 형태와 체험을 바탕으로 인식 될 수 있다. 때문에 인간은 공간을 둘러싼 물리적 요소인 '형태'와 같은 시각적 표현 등을 통하여 공간인식을 경험할 수 있으며 또한 형태는 공간을 디자인하는 방법이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건축과 의상 등의 디자인은 공간을 감지할 수 있는 '형태'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 의상은 인체 위에 착용되어 인체를 둘러싸는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의 경계로 의상과 인간이 갖는 관계를 형성한다. 의상의 존재를 통하여 한정된 공간이 형성되고 이것으로 공간이 지각될 수 있는 것이다.

좀더 상세히 살펴보면, 공간 인식을 위한 물리적 요소로는 인식하는 대상물과 그 물체에 내재되어 있는 질서의 형태, 크기, 구성상태, 표면질감, 색상, 그리고 일조와 조명상태 등이 있으며, 관찰자가 갖는 상태요소로는 관찰자의 위치와 감각기관, 기억과 경험, 그리고 심리적 상태 등이 작용하게 된다. 공간이란 사물과 이를 인식하는 인간 사이에서 발생하는 관계에 의해 형성되면서 주관적 변수인 역사와 문화, 습관, 전통, 환경 등의 영향을 받게 된다.⁷⁾ 이것은 공간을 인식하는 것이 시각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찰자의 다른 감각기관들과⁸⁾ 함께 종합적인 영향을 받아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또한 본질적으로 외부의 자극이 어떤 심리적인 반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개인의 심리적인 상태나 경험뿐 아니라 사회 환경 등이 함께 관여하기 때문에 공간지각의 결과도 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공간의 인식은 인간의 오감과 더불어 관찰자의 사회적 이념체계, 그리고 심리·정신적 이념체계가 함께 작용한 결과물이다. 예컨대 인간의 의상의 물리적 요소를 인식할 때는 공간 속에 형성

된 관찰자의 감각기관과 경험, 심리적 상태가 관여한다. 이 과정에서 의상은 공간 속에서 사회·문화적으로 규정된 의미를 내포한다. 즉, 공간인식은 공간 고유의 속성과 인간의 경험이나 축적이 상호 반응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단순한 시각적 요소로서의 개별적 형태만 강조하거나 혹은 공간을 한정하고 배열하는 순수한 구성적 역할만 인식하거나 아니면 단순한 의미 전달의 매개물로서만 형태요소를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⁹⁾ 공간인식은 공간을 형성하는 개별적 요소들의 지각이 아닌 인간의 물리적·심리적·사회적 환경요인을 통합적으로 인식하여 공간과 인간 사이에 형성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즉, 공간 속 요소들과 인간의 관계를 통하여 통합적이고 다양한 측면에서 공간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의상에서 인식되는 공간

건축이란 인간의 신체를 전제로 공간을 형성하는 측면에서 타 예술과 구별된다. 인간의 신체를 에워싸는 공간의 형성은 인간의 삶이 전개되는 무대이며 살아있는 공간이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의상은 건축에서의 공간과 같이 인체를 에워싸는 공간을 형성하며, 인간은 그 공간 속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동일한 공간미술이 되는 것이다.

왓킨(D. Watkin)은 건축과 복식을 동일한 조형 예술의 형식원리 외에도 인체와 그 마음을 담은 공간 형상이라는 점에서 복식과 건축을 유사점으로 보았으며 특히 복식은 인체에 입혀져서 정지하고 있거나 동작하기 때문에 정태적 미와 동태적 미가 고유한다고 하였다.¹⁰⁾ 다시 말해 건축이 인간의 거주 공간을 창조하는 것처럼 의상 역시 인체가 거주하는 최초·최소의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다¹¹⁾는 것이다. 또한 복식은 인간의 신체활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공간특성으로 인하여 건축과는 구별되는 동태적 미 즉, 유동적인 공간이 형성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의상에서 나타나는 공간의 개념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로 우리에게 신체를 보이게 또는 안보이게도 하는 가시성을 조절하는 측면으로서의 기능과 신체의 가시성을 다른 사물과 매개하는 역할로의 옷, 그리고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구획하는 경계선으로서의 옷을 포함하는 '물리적 영역'으로서의 공간 개념을 말할 수 있다. 의상에 나타나는 물리적 공간은 인간의 신체에 밀착하여 경계를 구분 지어주며 동시에 신체의 움직

임에 즉각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둘째로 질적·정신적 가치에서의 공간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의식의 공간'이다. 옷은 신체를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 일반적인 기능을 수용함과 동시에 옷이라는 문화적 텍스트¹²⁾를 통해서 옷이 내포하고 있는 규정된 바를 드러내어 신체에 다양한 해석 작용을 가하게 한다. 그러한 해석 작용은 신체의 선, 양감, 질감 등과의 재조정과 그 사이를 매개하는 문화적 기호, 주체설정, 정체성의 재구축 등 이론적 틀 안에서 다시 이루어진다.¹³⁾

이렇듯 의상은 신체에 대한 경계를 구분 지어주고 시각을 통하여 공간을 지각가능하게 해주는 물리적 역할을 포함하면서 사회적, 문화적 공감대를 내포하고 있다. 인간이 인식 가능한 물리적 공간은 신체를 에워싸서 공간을 형성하는 동시에 신체의 움직임에도 즉각 반응하여 변화하는 특성을 가진다. 또한 의상속의 공간은 의상이 생성하는 공간이 확장된 사회, 문화적 특성에 의해 주체인 몸이 가지는 정체성과 의미를 생성한다. 따라서 의상은 인간이 거주하는 공간으로서 공간과 공간, 인간과 공간이 상호 관계하며 이것이 의상이라는 형태를 통하여 인식되고 표현되는 것이다.

복식에서의 공간개념이 이러한 측면에서 논의되지는 못했지만 공간개념이 과거 복식과 현대의 패션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간단하게는 의복의 플리츠, 러플, 게더의 주름, 카울의 드레이프 등도 공간을 형성한다. 또한 15세기 여성 복식에서 코르셋(corset), 파딩게일(farthingale)을 이용하는 것을 계기로 인공적인 축소와 확대의 방법을 처음으로 복식에 적용시켰다.¹⁴⁾ 파딩게일의 사용 이후 빠니에(panier), 크리놀린(crinoline), 붓슬(bustle) 등은 근대 서양복식사에서 형태와 공간에 대한 표현의지의 대표적 사례들이다.¹⁵⁾ 1960년대를 전후해 키네틱 아트(kinetic art)의 연구는 과거 복식의 공간개념을 신체와 상호작용을 하는 유기적 합일의 개념으로 발전시켰다. 이것은 의상 실루엣의 정적인 형태에서 나아가 인체의 움직임에 따른 동적인 공간형태의 연구로 확장시켰다. 그러나 이들은 의상 속에서의 공간을 시각적으로 인식 가능한 물리적 개념으로 접근한 것이며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공간 속에서 기호를 포함하고 의미를 생성하는 공간으로서의 개념접근이 단절되어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들은 포스트모더니즘을 거쳐 오늘날 논의되고 있는 해체주의 의상에 이르기까지 공간개념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2. 모더니즘 공간에 대한 고찰

1) 모더니즘 공간의 형성배경

(1) 데카르트의 합리주의

모더니즘 공간의 배경이 된 철학적 사상으로서는 데카르트를 중심으로 한 이성중심의 합리주의를 들 수 있다. 17세기의 과학적 혁신으로 공간이 무한하다는 사상은 더욱 확고해졌으나 공간에 대한 보수 지배세력들의 신학적인 관념들은 과학적인 공간과 더욱 첨예하게 대립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한공간이 궁극적으로 받아들여지도록 기여한 핵심적인 인물은 데카르트였다. 그는 전통에 대한 높은 평가와 이성에 대한 높은 평가를 결합시킨 계몽적 작품을 저술하였으며 자신의 물리학에서 보다 질적인 성질을 갖는 공간개념을 발전시켰다. 그는 공간과 물질을 동일시하여 연장(extensio)을 공간의 근본속성으로 절대화했다. 또한 공간이 최소의 물질적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고, 그것을 미립자(微粒子)라고 불렀다.¹⁶⁾

데카르트는 이러한 연장의 철학을 확립함과 함께 세상에는 영혼과 연장만이 존재하며, 영혼은 연장의 존재를 가능케 해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에 잘 나타나 있다. 특히 데카르트에게 있어서 의식(conscience)이라는 것은 존재(rescogitans)하는 최초의 실체였다. 그는 의식과 사물의 물질세계를 구별했으며 후자에서 진공(vacuum)의 독립된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에게 있어서 공간과 매스는 같은 것이었으므로 공간성을 물질의 연장을 수반하는 동일한 것이라고 간주했다.¹⁷⁾ 이와 같이 데카르트는 의식이라는 정신적 세계와 물질세계 즉, 육체적 실체로 구분하여 전자는 비연장적인 존재로 확장되지 아니하는 '항상성'을 이루나 후자는 정신, 신성함, 어떠한 비물질성이 존재할 여지가 없는 세계를 의미하였다. 때문에 정신은 명석하고 분명한 관념을 가지게 되며 육체와는 완전히 그리고 절대적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육체 없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절대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반면 육체는 수동적, 기계적 자연의 속성을 보유하게 되어, 결국 육체는 기계가 되고 그 자체로는 존재성을 제공 받지 못하게 된다.

(2) 뉴턴의 기계주의

모더니즘의 지배적인 공간관을 형성한 과학적 배

경으로는 뉴턴의 과학이론을 들 수 있다. 뉴턴식 과학이론은 데카르트의 철학과 베이컨의 과학적 방법론 등을 배경으로 하며, 기능론적(機能論的), 선형적(線形的), 결정론적(決定論的) 특징을 갖는다. 뉴턴은 자연의 끝없는 다양성 속에서 일정한 통일개념을 도출하고, 그 개념에 수학적 표현을 부여했다. 그러므로 우주라는 거대한 기계의 복잡한 현상들은 이들을 기본적 구성체로 환원시켜, 이들이 상호 작용하는 장치구조를 발견함으로써 언제나 이해될 수 있다는 환원주의(還元主義)가 과학적 방법으로 채택되었다.¹⁸⁾ 따라서 뉴턴식 이론의 중심점은 절대적 객관성이 존재하며, 우주란 우리의 요구와 무관한 독립된 외적세계로서, 엄격한 인과율에 따라 시간과 공간이 진행된다는 것이다.¹⁹⁾ 그러므로 그의 '기계적 세계관'의 기초를 이루는 구체적 운동법칙의 설명이 가능해지면서 자연현상의 특성들 또한 인과법칙의 관계로 설명되어질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였다.

인간의 이성에 중심을 둔 근대 과학의 이념으로서 자연의 수산화는 한마디로 말해 모든 자연현상을 계산 가능한 것으로 변환시키는 것을 지향하고 있었다. 데카르트가 말했던 것처럼 과학이 인간으로 하여금 자연을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게 해주리라는 믿음은 이러한 '계산가능성'에 대한 추구·믿음과 불가분한 것²⁰⁾이었다. 공간에 적용된 이러한 개념은 중세 우주론의 육체와 영혼의 비동질적 공간을 오직 합리적으로 판단 가능한 물리적 실재만이 존재하는 동질적 공간으로 탄생시켰다. 때문에 과학의 방법과 실재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모두 공격의 대상이 되었으며, 계산과 수리에 의해 육체 또한 물질로 환원되는 객관적이며 기계적인 세계관을 낳았다.

2) 모더니즘 공간

데카르트의 이성중심주의와 뉴턴의 기계주의로 18세기 이후, 과학적·합리적 사고방식의 수용은 기술의 진보와 경제의 발달로 모든 분야에 기술적 완성, 효율성, 기능성을 신봉하는 현상들로 나타났으며, 과거의 양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양식인 기계미학을 출현시켰다. 이것은 점차 인류생활 전반에 고양되어갔고, 한 시대의 특정 흐름인 모더니즘 공간 패러다임을 등장시켰다. 이렇듯 넓은 의미로는 과학이나 합리성을 중시하여 근대화를 지향하며 좁은 의미로는 기계문명을 추구하는 모더니즘 공간개념은 시대정신의 표현을 인간의 보편성, 공간의 균질성, 형태의 단순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19세기 말엽

부터 20세기 전반기에 걸쳐 실내·건축의 공간디자인을 비롯한 모든 예술의 디자인 개념을 발전시켰다.

이러한 모더니즘 공간은 사회·경제적 측면과 문화·예술적인 측면에서 그 성격을 살펴 볼 수 있다. 사회적으로는 왕권의 몰락, 봉건사상의 붕괴, 시민사회의 형성으로 민족주의와 국가주의적인 경향이 두드러졌으며, 또한 경제에 있어서는 수공업이 공장대량생산방식으로 변모하는 과정으로 새로운 자본가 계층이 등장하고 반대급부로서의 일반 시민계층은 경제적 금융주의의 양상을 나타내게 되었다.²¹⁾ 공업화와 도시화 현상은 서정적 감성의 표출을 부정하고, 명확하고 질서정연한 사고로의 변화를 꾀하였으며 사회 내부에 부(富)의 불평등한 분배 문제를 고려하여 풍부한 조형과 장식은 낭비로 인식되었다.

또한 문화적으로는 봉건적, 전제주의 적인 질서로부터 벗어난 이성으로 인간의 본질을 추구하는 시민계급이 형성됨으로써 대중화의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예술적으로는 근대 초기의 순수예술은 예술과 과학기술의 접목을 시도하는 응용예술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특히 기계적 이미지는 간결하고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매력적인 대상이 되어 모든 예술분야에서 형태표현의 척도로 인식되었다.

이와 같은 모더니즘 공간의 영향 속에서 구현된 건축 즉, 공간디자인은 일반적으로 기하학적인 형태로 단순화되고 기능적인 성격과 함께 표준화와 장식배제, 맥락의 단절 등으로 특징지어졌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모더니즘 공간 디자인을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특성과 함께 「건축공간론」²²⁾에서 강력에 의해 분류되고 실제 건축에서 구현된 특성을 참고로 하여 연구자가 합리적 공간, 시각중심의 추상적 공간, 균질화된 중성적 공간, 지배와 통제의 수단으로서의 공간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각 공간의 구체적 개념과 특성을 다음 장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Ⅲ. 모더니즘 공간에 구현된 공간디자인의 특성

1. 합리적 공간

서구 모더니즘 사유의 이론적 근거는 데카르트로부터 기원되는 '이성'에 기반을 둔 사유체계로 자연의 세계를 과학적 이성만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전제를 두었다. 데카르트가 강조했던, 이성적 인간

이 '명석·판명하게' 인지하는 것은 참이며 확실하다는 믿음과 이성우위의 해결방법은 모더니즘 공간디자인 전반에 걸쳐 합리적 사고의 준거가 되었다.

이러한 이성과 과학에 의한 사고는 합리성의 배경적 체계에 의해 파악됨으로써 주어진 목표를 위해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수단을 찾고자 하는 합목적적인 성격의 추구를 의미하였다. 즉 건축의 기능을 최고의 효율성으로 그리고 최적의 상태로 이끌어 가는 것을 말한다.²³⁾ 기능에 대한 '합목적적'인 성찰은 곧 디자인과 인간과의 관계를 '효율성'이라는 측면과 연계시킴으로서 '기능적 방법'이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모더니즘의 디자인은 이성을 토대로 한 합리적 방법을 통하여 효율적인 공간창조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합목적적인 기능적 공간을 탄생시켰다.

또한 모더니즘 공간에 나타난 합리적 사고에 따른 디자인은 뉴턴의 기계주의적 자연관에 의해 구체화되었다. 뉴턴은 자연의 규칙성을 발견하고 그 이론을 완성하여 수학적이고 물리화적인 방법에 의한 사유와 실험방법을 설명할 수 있었다. 그에게 자연은 거대한 기계로서 이미 결정된 일정한 규칙과 질서에 의하여 움직이는 계산가능하고 설명 가능한 존재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합리적 사고와 방법은 디자이너들에게도 객관성에 근거하여 질서와 규칙이 존재하는 세계를 이성을 통한 합리적 방법으로 해결하게 함으로써 공간디자인은 효율성뿐 아니라 질서, 그리고 조화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가 르 코르뷔제(Le Corbusier)는 기능주의적 건축을 통하여 공간미학을 목적미학으로 확장했던 헨드릭 베를라헤(Hendrick Berlage)와 함께 건축은 질서이며, 조화는 비례라는 원칙을 이용하여 얻게 되는 것이라고 믿었던²⁴⁾ 대표적 인물이기도 하였다. 바우하우스 강당인 <그림 1>은 직선으로 늘어선 의자와 창문, 그리고 조명 등을 통하여 실내공간이 통일된 질서의 공간이자 효율적 공간배치를 통한 기능적 공간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듯 모더니즘 공간은 과학이나 수학적 해결방법에 근거한 균형과 질서의 공간으로 인간이나 사물의 기계적 비율, 비례 등의 연구를 통한 안정되고 조화된 불변의 공간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특성은 기능적이고 단순명료한 공간의 기초가 되어 획일화되고 객관적인 공간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자연을 비롯한 인간과 모든 세계를 계산가능한 객관적체계로 이해하여 디자인되었던 공간은 비물질화를 초래하게 되었으며, 인간의 다양한 경험과 감정을 담지

못하는 합리화를 위한 도구나 수단의 일환일 뿐이었다.



<그림 1> 데사우 바우하우스의 강당
Frank Whitford, 이대일 역(2002).
바우하우스, 시공사

2. 시각중심의 추상적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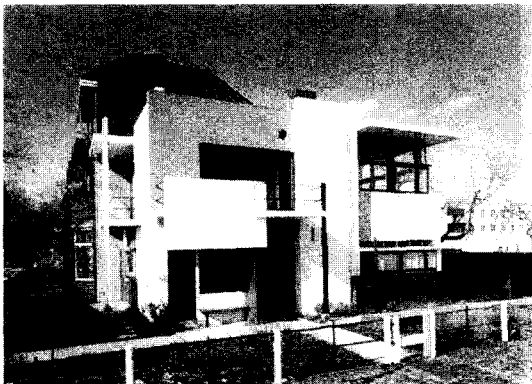
합리적 철학자나 과학자에게 있어서 우주는 비실재적인 존재가 아닌 수학적으로 정의되고 비례적으로 조성된 기하학적인 공간이었으며, 물질세계는 실질적인 것과 정형체로 파악되었다. 이는 자연현상에 무력함을 극복하고자 기하학적인 추상을 통하여 질서정연한 우주를 설정하였던 것이다.²⁵⁾ 이처럼 합리주의자들은 수학적인 체진리와 일치하는 대상을 기하형으로 보고, 이를 진리인식의 도구로 사용하였다.

추상적 공간은 시각중심의 근대사상과 맞물려 모더니즘 공간의 중요한 특성을 이루었다. 뉴턴의 기계주의적 자연관은 인간의 신체도 기계론적 기술에 의해 제작하고 해석할 수 있는 인간기계론을 낳았다. 기계적 해부학에 의해 신체가 파편화되고 추상적인 형태들이 신체기관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분리된 눈은 기계적인 신체의 일부이자 독립적인 개체였다. 젠크스(Chris Jenks)는 시각이 외부 대상과 분리되어 자율성을 얻게 된 것은 역사적으로 과학적인 '관찰'에 의해서이며, 이 관찰은 '시각중심주의(oculocentrism)'라는 정치된 관습이자 제도라고 말한다.²⁶⁾ 과학적 시선은 주체의 상상력, 욕망, 의도 등에 오염되지 않은 객관화된 시각으로 자연 또한 기계적 시선으로 바라봄으로써 결국 20세기 추상예술에서 완성된 형태를 보여주었다. 근대의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 진리였던 시각위주의 공간은 결국 추상을 통하여 보편적인 공간을 이루게 되었으며 이것을 유토피아의 모델로 삼았다. 기계와 테크놀로지의 진보로 세계의 구원과 인간의 총체적 해방이 기대되

었고 예술가들은 기계에 의해 더욱 이상화된 추상적 공간의 지배에 놓이게 되었다.

건축 공간 역시 이전의 건축공간이 지녔던 지역성과 역사성이 제거되고 대신 기하학적인 환원의 정신에 의하여 시각중심인 공간의 추상적 성격이 짙어지게 되었다. 데 스틸에 의한 건축은 평면적 기하성을 그대로 삶의 공간에 적용하므로 '수리적 기하학'을 적용한 단순 명료한 형태미를 나타내었다. 또한 모더니즘 건축의 기하학적이고 단순성이라는 특성은 르 코르뷔제에 의하여 기하학과 수학에 연결시켜 건축이론에 결합시키므로 그 이론적 구축을 완성하게 되었으며, 그로피우스의 인간의 보편적인 시각 원리를 전제로 추구한 기하학적 형태들과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의 공간디자인은 기하학적 공간구성을 통하여 탈장식화한 간결한 형태의 추구하고 추상을 지향할 수 있었다. <그림 2>는 리트펠트(Gerrit Thomas Rietveld)의 「슈뢰더 하우스」로 일종의 추상조각처럼 단순하고 기하학적인 평면을 중심요소로 채택하여 해체와 조합을 거쳐 구성되었다.

이처럼 시각위주의 추상적 공간은 시각적으로 명료한 순수 기하학적인 사각형, 삼각형, 원형 등의 형태로 디자인되었으며 공간은 우리들의 감정과, 인체의 움직임에 앞서 시각으로 느끼는 눈의 움직임을 복돋아주는 주된 힘으로 인식되었다. 즉 순수한 형태들로 현대적이고 기능적인 공간을 창출할 수 있었으나 인간의 신체와 오감의 경험이 배제된 시각위주의 추상적 공간은 객체화된 대상으로서의 존재에 불과했다.



<그림 2> Rietveld의 「슈뢰더 하우스」
H. W. Janson & A. F. Janson, 최기득 역(2001),
서양미술사, 미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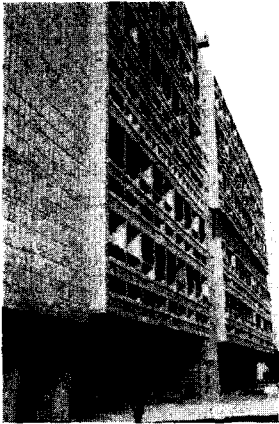
3. 균질화된 중성적 공간

추상과 환원은 공간 고유의 장소적 성격을 제거함과 동시에 그 동질성을 강화한다. 그 결과 균질화되고 중성적인 공간이 만들어지고, 공간은 표준화와 대량 복제가 가능해졌다.²⁷⁾ 기하학적 형태에 근간을 둔 모더니즘의 추상적 공간은 지역성과 역사성의 결여를 가져왔으며, 이것은 획일화된 단일의 공간을 표방하게 되었다. 나아가 공간의 기능주의적 단순성은 생산체계의 결합으로 과거 소수 특권층의 표상물이 아닌 대중 누구나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보편화된 공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데 스틸의 예술가들은 보편적인 조형 언어를 개발하여 초국가적인 형태를 지향하면서 이 세계를 유토피아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그 당시 과학기술이 발달로 인한 대량생산의 가치체계와 또한 정당, 매스미디어, 상업단체의 조직화에 대한 영향으로 개인주의에서 벗어나는 사회적 경향도 몬드리안과 데 스틸 미술가들이 보편성을 지향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보편화와 조형성적 문화는 시대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다.²⁸⁾ 때문에 건축, 실내디자인, 가구 등은 신조형주의와 요소주의에 근거한 형태체계로 보편성을 향한 유토피아의 실현을 꿈꾸며 발전되었다. 사회주의자의 이상에 영감을 받은 르 코르뷔제의 작품 <그림 3>은 엄격하게 나누어진 사각형의 박스들로 건물 내부의 각각은 평등성을 실현하는 개인을 위한 규격화된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1930년에서 1970년까지 세계를 휩쓸었던 바우하우스 모더니즘에서 잘 나타난다. 기능적이고 단순한 공간디자인으로 노동자들을 비롯한 모든 인간의 삶을 향상시키고 평등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들의 해결책은 대량생산이었다. 이것은 후에 미국의 자본주의와 결합하여 전 세계를 하나의 획일화된 공간디자인으로 특징짓는 '국제주의 양식(International style)'을 탄생시켰다.

인간의 평등을 실현하고 기능적이고 합리적인 공간 디자인으로서의 국제주의 양식은 특정한 스타일로 귀결되는 보편적인 공간이었다. 따라서 어디서나 누구나 같은 공간의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으나 결국 개성이 결여된 공간디자인에 의해 대중들은 공간의 구분을 쉽게 이해할 수 없었으며 친숙한 개인적 경험이나 지역적 경험에서 단절되기에 이르렀다.



〈그림 3〉 Le Corbusier의 「위니테 다비타시옹」
Carlo Strickland, 양상현 외 역(2003).
클릭, 서양건축사. 예경.

4. 지배와 통제의 수단으로서의 공간

데카르트의 합리주의와 과학의 지배는 인간에게 모든 세계를 계산가능하고 추측, 통제가능한 거대한 기계처럼 인식시켰으며, 이것은 인간자신과 그들이 세계와 맺고 있는 관계에도 적용되었다. 그 결과 근대공간은 배치를 통해 인간 행위를 합리적으로 기획하고, 통제하며, 주조하는 장치로 고안되고 설계되었다. 이는 근대가 지향하는 생산, 훈육, 지배를 위한 공간으로 생활세계의 일상을 지배하는 공간구조 내지 유형을 낳았다.²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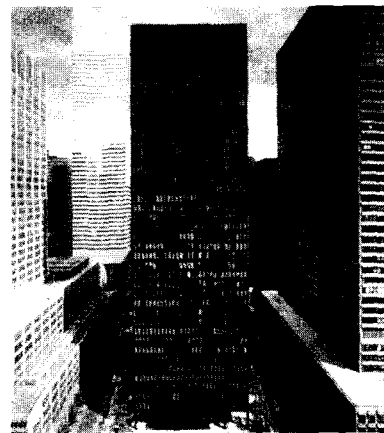
산업혁명 이후 자본의 발전과 함께 고용이 일반화되면서 노동자들은 효율적인 생산을 위해 기계화되고 분업화된 작업의 흐름에 투입되었고 공장 외부에서의 생활도 훈육, 질서, 효율성이라는 원리에 의해 재구성되었다. 이러한 과학과 자본주의에 의해 통제되는 산업화사회의 효율성에 대한 요구는 공간의 효율적 구성을 야기하였고 분업으로 인한 공간의 제약을 초래하였다. 즉, 공간은 특정한 행동을 유발하는 구체화된 공간으로 바뀌어갔다. 공간의 구체화는 형태적으로 추상적 공간을 표방했으나, 그것을 통하여 형성되는 부분공간은 외부와의 이질성과 내부적 동질성을 확보하였다.

한네스 마이어(Hannes Meyer)는 '삶의 기능들에 형태를 부여하기 위해' 인간의 생활과 동작을 도식적으로 유형화했다. 그것은 "1. 성생활 2. 잠버릇 3. 애완동물 4. 정원 가꾸기 5. 개인위생 6. 날씨에 대비 7. 집에서의 위생 8. 자동차 유지 9. 요리하기 10. 난방 11. 햇빛 12. 봉사" 등이었다.³⁰⁾ 인간의 생

활에 불필요한 행동들과 작업들을 제거하고 유형화하기 위해 좁은 홀을 중심으로 방들이 몰려있게 배치하는 것이 선호되었다. 건축공간은 인간의 운동을 효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디자인할 뿐 아니라 공간의 구분을 통하여 인간생활과 삶 전반에까지 구체적이고 통제하기 위한 작업공간이었던 것이다.

〈그림 4〉의 「시그렘 빌딩」은 극단적으로 계획된 공간의 질서를 나타냄으로써 인간을 타락과 혼동으로부터 질서와 이성의 세계로 이끌 수 있다는 믿음을 표현한 것이다. 수많은 계획의 공간은 동일한 형태이나 인간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독자적 특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것은 이후 20년 동안 지어진 많은 사무소 건물들의 원형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공간구조로 인해 인간은 기계처럼 끊임없는 훈육과 지배의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이는 모더니즘의 권력 장치가 공간을 통하여 구조화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때문에 공간이란 우리의 감각이나 사유를 제약하는 거대한 기계적 공간이었으며 인간은 그것의 지배에 따라 생활방식을 창출하며 스스로를 억압, 억제할 수밖에 없었다.



〈그림 4〉 Mies van der Rohe & Philip Johnson
Carlo Strickland, 양상현 외 역(2003).
클릭, 서양건축사. 예경.

IV. 모더니즘 공간에 구현된 패션의 특성

1. 합리적 공간

이성우위의 합리적 공간은 기하학적 비례를 통한 균형 잡히고 통일된 질서의 공간이었으며, 합목적적

인 기능적 공간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패션에도 적용되어 디자인 요소들의 비례와 조화에 의한 완벽한 조형미와 실용성을 가미한 기능미 추구로 표현되었다.

1) 완벽한 조형미

모더니즘 공간은 객관적이고, 통일과 질서를 중시하는 가장 이상적인 하나의 규범 아래 인간의 삶과 예술에 새로운 디자인개념을 성립시켰다. 이러한 합리적 공간의 특성은 의복에서도 이상적 규범으로 정규화되어 완벽한 조형미를 나타내었다. 복식은 절대적인 법칙에 따라 균형적이며 기하학적 비례로 창조되었으며, 비합리적인 불필요한 장식적 요소나 기형적인 요소는 제거되었다. 복식에 적용된 기하학적 비례의 완전한 형태추구로 복식디자인을 형성하는 포켓, 벨트, 칼라, 단추 등 각 요소들은 비례와 균형에 맞추어 조형되어졌다. 의복 내부의 허리선, 요크선, 솔기선 등의 분할과 접합 또한 전체와 조화된 비율로 나타났다. 각 요소들은 일관된 구조 속에서 형태들의 반복과 수학적 비율로 통일화된 질서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각 의상요소들의 질서는 의상전체의 조화와 통일성을 나타냈으며, 이것은 토탈 룩(total look)이라는 패션코디의 개념까지 확장되었다.

또한 완결된 조형미의 영향은 의상디자인뿐 아니라 이성적으로 판단 가능한 의상의 물리적 공간과 관계하였다. 옷의 윤곽을 희미하게 만드는 장식들을 붙이지 않게 됨에 따라 명확한 의상내부와 외부의

공간형성은 분명한 형태와 경계를 가지고 나타났다.

〈그림 5〉는 1939년 스키피아렐리(Elsa Schiaparelli)가 디자인한 오버올 스타일(overalls style)의 의복으로 단순·명료한 직선적인 실루엣을 형성하고 있다. 여기서 기하학적인 실루엣과 조화하는 기하학적인 형태의 상하포켓은 완벽한 좌우대칭과 황금비의 원리에 의해 디자인되었다. 또한 이러한 의상은 인간의 몸에 입혀지고 행위에 반응하지만 항상 인간이 판단 가능한 형태적 공간을 유지하게 된다.

2) 기능미 추구

모더니즘 공간디자인은 데카르트의 이성에 기반을 두어 인간주체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를 합리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질서에 입각한 합목적적이고 기능적인 객관성의 논리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공간개념 속에서 모더니즘 건축과 디자인분야를 비롯한 모더니즘 복식 또한 합리적이고 기능적인 공간으로 창출되어졌다.

예컨대 합리적 공간은 인체의 곡선을 과장하여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간의 몸을 억압하여 육체미를 강조했던 과거의 코르셋과 같은 의상에서 탈피하려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객관적 사고의 결과로서 의상은 인체의 곡선을 강조하기보다는 기하학적 비례와 조화에 입각하여 생활을 영위하는데 실용적으로 디자인되었으며 좀더 인체에 자연스럽게 착장 되어졌다.



〈그림 5〉 Elsa Schiaparelli의 overalls style의상
François Baudot(1999). *A Century of Fashion*,
Thames & Hudson Ltd, London.



〈그림 6〉 Chanel François Baudot(1999).
A Century of Fashion. Thames & Hudson Ltd, London.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패션은 현실생활을 추구하는 기능주의와 보다 합리적이고 아름다움을 찾으려는 대중을 위해 새로운 형태의 창조가 필요했다. 또한 전쟁 중 직업전선에 뛰어들었던 여성들은 사회에서의 자신의 자리를 굳히기를 원했고 이들을 위해 일할 때 입을 수 있는 기능적인 의복의 출현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때문에 상황에 적합한 보다 합리적이고 기능적인 의상이 등장하게 되었다. 패션은 실용성을 가미하기 위해 단순한 직선적 실루엣으로 인체에 보다 자연스럽게 착장되었으며 과학기술의 발달과 생산방식의 변화를 수용하여 더욱 가속화되었다. <그림 6>은 1929년 샤넬이 저지 의상을 착용한 모습으로 편안하게 내려오는 실루엣으로 기능적인 활동성을 느낄 수 있다.

2. 시각중심의 추상적 공간

시각 중심의 추상적 공간은 과학적 시선을 통한 단순화되고 기하학적인 공간디자인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패션에서도 단순하고 기하학적인 형태로 표현되었으며 단조로운 형태를 보안하기 위해 순수한 소재의 특성과 원색이 강조되었다. 또한 기하학적 형태가 극단적으로 나타나 인체의 형태와 움직임에 저해하는 육체의 주변화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1) 순수성 추구

모더니즘 공간디자인은 모든 사적이고 주관적인 요소들을 배제함으로써 기하학적인 순수 형태를 통해 객관적인 세계질서를 획득할 수 있으리라고 믿었다. 이러한 시각중심의 추상적 공간은 의상디자인에 있어서도 이전까지의 장식적인 레이스, 러플 등 화려하고 인위적인 곡선을 버리고 단순한 기하학적인 형태, 즉 사각형, 삼각형, 원, 직선 등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형태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추상적 공간은 분석과 해부를 통한 극도로 단순화된 형상으로 간결하며 시각적으로도 명쾌감을 제공하였다.

또한 단순하고 정돈된 실루엣에 대한 단조로움은 실루엣 내에 포함된 소재의 질감이든가 문양 등에서 보상 받으려는 흐름을 조성하였다. 다시 말해, 단순하고 매끄러운 윤곽선내에 기하학적이고 규칙적인 문양을 강렬한 색상 대비를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모습이 눈에 많이 띄었고, 직선과 기본적인 원, 삼각형, 사각형 등의 단순 조형이 의복 재료의 패턴 문양으로 많이 이용되기 시작하였다.³¹⁾ 이것은 이전시대의 공간 디자인적 특성에서 벗어나고자한

노력으로 과거의 전통과 단절된 미래에 대한 희망과 새로운 감각의 이상을 담고자 했다. 1965년 이브 생 로랑(Yves Saint Laurent)은 <그림 7>에서와 같이 몬드리안의 추상화를 날씬한 원통형 공간의 의상에 접목시켰다. 기하학적 비례와 원색으로 디자인된 추상적 의상을 착용한 인체는 마치 직사각형의 캔버스 모습을 시각화하고 있다.



<그림 7> Yves Saint Laurent, Valerie Mendes 외, 김정은 역(2003). 20세기 패션, 시공사.

2) 육체의 주변화(周邊化)

합리적 사고의 수단이었던 추상적 공간은 단순하고 순수한 기하학적 형태와 패턴, 색상 등으로 특징 지워졌다. 이러한 장식을 배제한 형태의 단순성은 인간 행위의 편리함을 가져와 실용적이며 대량생산에 적합한 효용성을 획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바라봄을 위주로 이루어진 추상적 공간은 이러한 특성의 과도한 추종으로 말미암아 결국 인간의 부재를 가져오게 되었다. 인간의 육체와 행위를 중심으로 고려된 의상디자인 보다는 극단적인 기하학적 형태추구나 눈으로의 즐거움을 위한 의상디자인으로 인체는 추상적 공간디자인을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주변화와 물체화(物體化)되어 나타나게 되었다.

근대적 합리성을 재해석하려는 경향에 있어서 복식 형태 및 표현방식을 보면 시대적 예술사조의 반영으로 인체형을 무시한 순수 기하학적 형태의 복식이 출현하였고, 기계나 사물형태의 직접적 인유나 복식을 통한 인체의 노출이 급격히 반영됨을 볼 수 있다. 표현방식을 보면 모더니즘 복식의 형태적 이미지를 고수하고 있으나 기하학적 형태요소의 조합을 통해 복

식 자체를 재해석하거나 복식의 착시와 왜곡, 그리고 과장된 형태가 나타났다.³²⁾ 이러한 극단적인 추상의 표현으로 인체는 더 이상 의복의 공간 속에서 삶을 영위하는 공간의 주체가 될 수 없었다. <그림 8>은 1950년대 로베르토 카푸치(Roberto Capucci)가 디자인한 박스형태의 의상을 보여주고 있다. 기하학적 형태의 가능성에 매료된 그는 박스, 혹은 “종이 가방”라 인이라고 이름 붙여진 의상의 실루엣뿐만 아니라 사각형의 케이프, 모자와 단추에서도 기하학적인 형태의 조화를 이루어내었다. 이러한 인간의 인체곡선을 고려하지 않은 기하학적 의상디자인은 시각적 감각과 흥미를 유발하기에 충분했다. 여기서 인간의 신체는 종이 가방에 담긴 사물과 같은 것으로 물체화 되어 나타났다. 의상의 공간은 거대한 박스의 건축공간과 같은 맥락이며, 결국 그 속의 인간은 사유와 감각을 제약 받는 박스 속 공간에 위치한 기계적 인간과 같은 것이었다.



<그림 8> Roberto Capucci의 박스라인 의상
Valerie Mendes 외, 김정은 역(2003).
20세기 패션. 시공사.

1) 균일화

19세기의 마지막 10년 동안에는 기성복 생산이 엄청나게 확대되면서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기성복의 생산은 18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여성복이 코르셋의 프레임 위에 입는 딱딱한 보디스에 중점을 두는 한, 옷 전체를 미리 생산하기 까지 기성복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의상의 디자인이 더 단순해지자 비로소 이것이 실제로 가능해졌다. 기성복은 능수능란하게 여성들의 욕구를 어느 정도는 단순화하면서 동시에 다수 여성들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게 되었다. 그 덕분에 여성복은 값이 저렴해졌고 스타일은 균일화되었다. 이로써 신분의 차별은 물론 연령에 따른 구별도 사라졌다. 따라서 의상의 소재, 패턴, 색상, 헤어스타일, 모자 등은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해졌다.³³⁾ 대량생산과 매체의 발달을 통하여 패션의 균일화 혹은 민주화로의 이행이 성립되면서 이제 신분과 연령을 초월하여 균질화된 중성적 공간이 탄생된 것이다.



<그림 9> 「르 프티 에코 드 라 모드」지의 삽화
Valerie Mendes 외, 김정은 역(2003).
20세기 패션. 시공사.

3. 균질화된 중성적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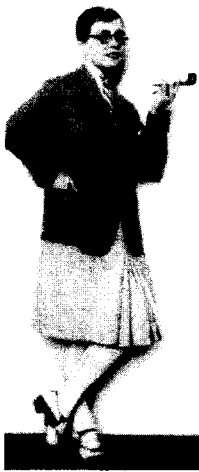
균질화된 중성적 공간은 객관적인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획일화되고 보편적인 공간으로 나타났다. 복식에서의 공간 역시 단순하고 직선적인 형태로 대량복제가 가능해짐으로써 표준화된 형태를 띠었으며, 여성의 활동성이 강조됨으로써 남녀의 구분이 모호해진 중성적 공간을 나타내었다.

1920년대 스타일은 오트쿠튀르의 화려한 살롱으로부터 유럽과 미국의 변화가로 신속하게 전파되었다. 파리의 패션거리 주변에 모조품 의상실들이 생겨나자 쿠튀르 의상실들은 저작권을 설정하려고 했으나, 막무가내로 이루어지는 모방을 막을 수는 없었다.³⁴⁾ 특히 직선으로 재단된 헐렁한 가르손느(garçonne) 스타일은 표준 사이즈로 대량생산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집에서 만들기도 쉬웠다. 옷 한 벌에 2-3미터의 옷감이

면 충분했으므로 경제적이었고, 가벼운 소재를 사용하는 경향이었으므로 가정용 재봉틀로도 만들 수 있었다.³⁵⁾ <그림 9>는 1934년 11월 「르 프티 에코 드 라 모드(Le Petit Echo de la Mode)」지에 실린 이브닝 드레스와 이브닝 코트의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이 패션 신문은 집에서 직접 옷을 만들어 입는 사람들을 위한 의상스타일들을 선보였다.

2) 중성화

균일화되고 보편화된 공간디자인으로 인간의 행위와 사고뿐 아니라 의상디자인에서도 유사한 형태들이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연령과 신분, 지역을 초월한 패션의 동질화는 여성이 남성의 역할을 대신하여 실용성이 요구되면서 그리고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패션미의 흐름이 부상하게 되면서 엄격히 구분되었던 남성과 여성의 성별에서도 나타나 중성적 이미지를 나타내게 되었다. 여성패션의 중성화는 주로 남성들이 착용해왔던 패션아이템을 여성패션에 도입하거나 남성적인 요소 또는 패션이미지에 영감을 얻어 여성패션에 시도함으로써 나타났다.



<그림 10> Garçonne girl
François Baudot(1999). *A Century of Fashion*.
Thames & Hudson Ltd, London.

입대하는 남성이 늘어나면서 병원이나 농장뿐만이 아니라 공장, 그리고 화학 산업 같은 직종에도 여성의 참여가 장려됨으로써 여성들도 실용적이고 편안한 작업복의 필요로 남성들의 상장이었던 바지를 입게 되었다. 이후 바지의 편리함을 체험하게 된 여성들은 일상 복장에서조차 바지의 디자인을 수용하

게 되었다. 또한 여학생의 교복과 여성의 유니폼은 스커트를 유지해 왔지만 '여성적'인 이미지 보다는 견장, 타이, 남성용 셔츠와 같은 남성복과 군복을 연상시키는 특징들이 사용됨으로써 중성적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특히 남성과 여성의 활동이 보다 유사해져 함께 근무하고 같은 스포츠와 오락을 공유하게 된 1920년대에 여성들은 미소년의 이미지로 덜 '여성스럽게' 보여 졌다.

<그림 10>은 가르손느 룩(garçonne look)으로 짧은 머리에 재킷, 셔츠, 넥타이 등의 복장으로 당시의 진취적이고 개방적인 여성상을 상징하였다. 헤어스타일과 의상의 남성적인 요소로 인하여 풍기는 미소년의 이미지는 모호한 성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다.

4. 지배와 통제의 수단으로서의 공간

지배와 통제의 수단으로서의 공간은 인간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공간을 구획하고 그 특성에 따라 규율화하였다. 과학과 산업화의 발달, 그리고 전쟁은 인간의 삶을 변화시켰고 복식 또한 이러한 상황에 적합한 것이 요구되었다. 이에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복식과 전시의 의복규제가 나타났으며, 또한 당시의 복식이 형성하는 공간형태에 맞는 인체를 요구하여 육체미의 통제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1) 의복의 세분화

산업의 발전과 함께 도시생활이 확대됨에 따라 일상생활의 형태도 다양해져, 의복에서도 점차 구분이 뚜렷해지게 되었다. 즉 일상복, 외출복, 사교복, 운동복 등 용도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누어지고, 각각 그 용도에 알맞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³⁶⁾ 1930년대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타운 수트(town suit), 호스티스 가운(hostessgown), 칵테일 드레스(cocktail dress), 이브닝 드레스(evening dress), 스포츠 웨어(sports wear) 등 때와 장소에 알맞고 기능적으로 세분화된 복식을 착용하였다.³⁷⁾ 이처럼 복식은 그 상황과 목적에 적합하고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었다. <그림 11>과 <그림 12>는 1928년 버터릭 사의 봄용 데이 웨어와 이브닝 웨어 패턴으로 시간과 장소에 따라 뚜렷이 구분되는 의복 형태를 볼 수 있다.

또한 1950년대 영국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여전히

상당한 정도의 의상 격식이 존재했다. 몇몇 경우에는 모자를 쓰지 않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장갑은 격식을 차리지 않은 여름용 면 드레스를 입을 때조차도 착용되었다. 젊은 여성들은 주의 깊게 선택된 옷, 완벽한 화장, 아름답게 매니큐어가 칠해진 손, 정돈된 머리를 한 단정한 옷차림으로 우아하게 보이기를 원했다. 유행을 따르는 여성은 여전히 다양하고 많은 의상을 필요로 했다. 상황에 맞춰 옷을 입어야 한다는 아주 엄격한 관념이 여전히 존재했고, 계절에 따라 입는 의상이 달라졌다.³⁸⁾ 더욱 세분화된 상황과 시간에 따라 의상의 착용이 규칙화되어 제시되었다. 여성들은 이러한 규칙에 맞추어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여유로운 삶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맞는 '적절한 의상'에 대한 정확한 규율은 1970년대에 이르러서야 거의 붕괴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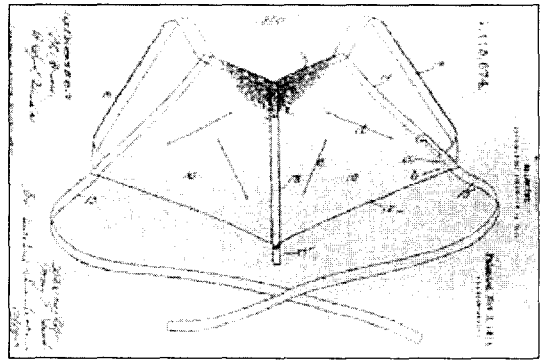
<그림 11> 버터릭 사의 데이 웨어 옷본
Valerie Mendes 외, 김정은 역(2003).
20세기 패션. 시공사.



<그림 12> 버터릭 사의 이브닝 웨어 옷본
Valerie Mendes 외, 김정은 역(2003).
20세기 패션. 시공사.

2) 육체미의 통제

이성이 지배하는 공간 안에서의 기능에 적합한 직선적이며 간결한 형태미는 예술이나 건축을 비롯한 조형물과 함께 인간의 몸에 대한 사고까지 변화시켰다. 공간패러다임에 의한 기하학적이고 단순한 상자형태의 건물공간속의 조형물들은 그 공간과 조화하는 공예품들과 생활용품들을 비롯한 실내공간을 창조했으며, 이것은 복식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단순한 기하학형태의 복식들은 자연스러운 곡선이나 직선적인 실루엣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복식이 입혀지는 인간의 몸은 허리를 조여 주고 가슴과 엉덩이를 강조하는 보정물로 조형되었던 시대와 달리 인체의 곡선이 잘 나타나지 않는 마른체형이 선호되었다. 육체미의 형상을 억제하는 의복에서의 공간은 의복에 맞는 몸의 정형화를 혼용하였다. 육감적인 인간이 아닌 이성적인 인간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공간이 요구하는 특성에 맞추어 의복과 몸은 끊임없이 지배되어졌다.



<그림 13> Mary Phelps Jacob의 브래지어
Valerie Mendes 외, 김정은 역(2003).
20세기 패션. 시공사.

특히 1920년대 당시의 지배적인 패션은 여성이 가슴도, 배도, 엉덩이도 '갖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이러한 유행 라인이 젊은 여성에게만 적합한 것으로 여겨졌는데, 패션디자이너들은 나이가 들어 뚱뚱해진 여성들에게도 무자비하게 새로운 실루엣을 강요했다. 그래서 숙녀들은 유행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스포츠, 사우나, 마사지, 헬스 기구는 물론 다이어트 약과 다이어트 크림 등을 이용하여 이상적인 몸매를 만들기를 원했다.³⁹⁾ 또한 60년대의 패션은 젊음의 충만함과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적 분위기로 시도되었다. 짧은 쉬프트(shift) 드레스나 미니스커트에 밝은 색 스타킹과 굽 없는 구두를

신은 여성들의 모습은 아이처럼 어려 보였다. 이상적인 신체의 기준은 여성적인 곡선이 없는 미성숙한 소녀의 외모를 그리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당 시대에 큰 인기를 얻어 미의 이상형으로 부상했던 패션모델 트위기(Twiggy)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그림 13>은 메리 펠프스 제이콥(Mary Phelps Jacob)이 디자인한 최초의 브래지어로 1920년대 중반까지의 다른 초기 브래지어들처럼 뼈대가 들어있지 않았으며 가슴의 모양을 강조하기보다는 납작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

3) 전시의 통제

모더니즘 공간은 시대적 상황이었던 전시의 공간을 통하여 인간의 생활과 복식을 통제하고 지배하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여성들이 착용했던 옷들은 디자이너나 여성이 수행해야 했던 역할 뿐만 아니라 이제 정부의 규정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것은 근대사에서는 처음으로 의복 제조와 개인의 의복 입수에 관한 정부의 규제 조치로 패션은 정부에 의해서 통제대상이 되었다. 때문에 모든 패션은 사회분위기의 고조와 엄격한 통제 속에서 정체현상을 나타냈으며 옷의 선택이 매우 제한됨에 따라 실용적 대안이 중심을 이루게 되었다.

전시로 인하여 의복 산업은 낙하산과 작업복과 같은 정부 보급품의 생산으로 전환되었으며 옷감배급이 엄격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정부에 의해 '실용복장'이 장려되었다. 또한 감소한 보급품을 균등하게 분배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은 의복과 식량과 같은 필수 상품에 대한 할당 배급제로 나타났다. 상품을 사기 위해서는 돈과 정해진 수만큼의 배급포를 제시해야 가능했다. 나아가 1941년 상품의 품질과 가격을 통제하기 위한 품질 기준(Utility Scheme)의 도입은 옷감의 양, 치마의 길이, 주름, 호주머니, 단추 구멍의 수 등을 규정하였다. <그림 14>는 전시에 소개된 잡지 일러스트레이션으로 현 옷을 개조하여 새로운 디자인을 창조해내는 3가지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쉽게 닳아 낡은 목과 소매에 새로운 천을 대거나 밋밋한 스커트의 길이를 늘이거나 조각을 덧대는 방식이 주로 이용되었다. 여성들은 애국심에 동조하여 실용적일 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보이길 원했다. 따라서 전시의 부족한 물품이나 단조로운 디자인을 극복하기 위하여 오래되고 낡은 옷은 수선이나 재활용하여 새로운 멋을 창조하였다.



<그림 14> 의상개조 방법의 일러스트레이션
Valerie Mendes 외, 김정은 역(2003).
20세기 패션. 시공사.

V. 결론

본 연구는 공간을 인간과의 상호작용이 공존하는 삶의 터전으로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연구의 목적인 모더니즘패션에 형성된 공간의 특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공간은 가시적인 표현 등을 통하여 그 고유의 속성과 인간의 경험이나 축적이 상호 반응한 결과물로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대상물로서의 건축과 복식은 인간의 신체를 에워싸는 공간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타 시각예술과 구별되는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의상에서의 공간은 신체에 대한 경계를 형성하는 물리적 영역의 공간 개념으로 신체의 움직임과 동시에 가변화된다. 또한 사회, 문화적 특성에 의해 몸이 가지는 정체성과 의미를 형성하는 질적·정신적 영역으로서 공간을 지각하는 방법과 인체와의 관계를 통하여 고유한 표현 특성을 나타낸다.

모더니즘 공간은 데카르트의 합리주의와 뉴턴의 기계주의를 바탕으로 형성되어 19세기 말엽부터 20세기 전반기에 걸쳐 공간디자인을 비롯한 모든 예술을 효율성, 기능성, 보편성, 단순성 등의 개념으로 발전시켰다. 이러한 모더니즘에 구현된 공간디자인과 패션의 공간특성을 합리적 공간, 시각중심의 추상적 공간, 균질화된 중성적 공간, 지배와 통제 수단으로서의 공간으로 분류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합리적 공간은 비례를 통한 균형 잡히고 통일된 질서의 공간이자 합목적적인 기능적 공간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패션에서도 디자인 요소들의 비례와 조화에 의한 완벽한 조형미와 실용성을 가미한 기능미 추구로 표현되었다. 둘째, 시각중심

의 추상적 공간은 과학적 시각에 의한 단순화되고 기하학적인 공간디자인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패션에 구현되어 단순한 형태와 순수한 색상, 소재의 특성이 강조되어 순수성을 띠었으며 인체가 왜곡된 극단적인 추상으로 표현되어 육체의 주변화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셋째, 균질화된 중성적 공간은 객관적인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보편적인 공간으로 나타났다. 복식에서의 공간 역시 단순하고 직선적인 형태로 대량복제가 가능해짐으로써 표준화된 형태를 띠었으며, 여성의 활동성이 강조됨으로써 남여의 구분이 모호해진 중성적 공간을 나타내었다. 넷째, 지배와 통제의 수단으로서의 공간은 인간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구획된 공간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패션에도 적용되어 장소, 기능과 목적에 적합한 세분화 형태로 나타났다. 또한 직선적인 실루엣에 적합한 마른체형을 조장함으로써 육체미의 통제가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전시의 상황으로 인한 의복의 규제가 나타나 복식의 스타일과 구입을 제한하였다.

이와 같이 모더니즘에 구현된 공간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공간디자인과 패션은 디자인 개념과 원리에 있어 공통된 특성을 나타냄으로써 표현방법에 있어서도 유사한 공간구성과 형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사회·문화적인 공간에서 비롯된 기계주의, 평등과 유토피아의 추구와 함께 인간에 대한 지배적 공간 등의 특성은 패션에서도 공통된 의미로 표현되었다. 그러나 모더니즘 공간디자인이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들을 사용하여 기능성과 합목적성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에 반해 시각 중심의 추상적 복식공간은 극단적인 추상형태와 시각적인 쾌감추구를 통하여 인체의 행위에 불편과 제약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이것은 타 공간디자인과는 달리 복식이 인체위에 직접적으로 구성되고 인간행위와 함께 물리적 공간이 변화되는 복식고유의 특성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또한 균질화된 중성적 공간의 중성화에서 건축에 비해 남여의 구분이 명확하게 표현되었던 복식은 남성복의 차용이나 디자인 요소의 차용을 통하여 보다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나타났다. 이것은 사회적 변화에 적응하는 진보적인 여성의 위치표현이었으나 결국 복식의 공간을 통하여 평등과 보편성을 표방한 인간상이 성별화된 특수한 인간임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이처럼 모더니즘 공간에 구현된 복식의 특성은 서로 깊은 연관성과 함께 이질적인 성향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질성은 복식의 고유한 공간개념

에 기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결국 모더니즘 공간과의 관련성을 내포하고 있다. 즉, 서로 분리된 개념이 아닌 공간과 형태, 인간과의 얽히고설킨 관계 속에서 복식의 특성이 형성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 1) 최인순 (1987). 동적 공간구성을 위한 복식디자인 : 'Kineticism'에 의해 본 복식조형.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 김정숙 (1993). 공간조형을 응용한 현대복식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 이연주 (2001). 패션디자인에 형성된 공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 권영걸 (2003). 공간디자인 16강. 국제, p. 11.
- 5) 위의 책, p. 12.
- 6) 위의 책, p. 13.
- 7) 대한건축학회 (2003). 건축공간론. 기문당, p. 63.
- 8)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는 인간의 감각을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의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다. 이 감각기관들은 신체와 관련되어 물리적인 환경에 대한 자극을 수용하게 된다. 또한 깁슨(James J. Gibson)은 오감에 관한 가설을 발전시켜 보는 시스템(시각), 듣는 시스템(청각), 미각과 후각 시스템, 기초적인 방향감각 시스템, 그리고 촉각 시스템으로 분류하고 있다. Jürgen Joedicke, 윤재희 외 역 (1999). 건축의 공간과 형태, 세진사, p. 11.
- 9) 이종우 (2002). 건축사상과 공간. 기문당, p. 120.
- 10) Watkin, David, 장성수 역 (1988). *Morality and Architecture*. 태림문화사, p. 95.
- 11) 의복에서 주어지는 보편적 공간은 옷과 신체간의 '사이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의복 속에서 인간의 신체는 거주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2002). '공간과 의상'. 광주비엔날레전시내 전시용 패넌.
- 12) 의상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기호로서 의상의 종류, 형태, 기능 등에 대하여 인체의 보편적 가치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밀리터리룩이나 제복이 주는 경직됨과 형식적 관념, 푸어복에서 볼 수 있는 반항과 자유 내지는 젊음 등은 옷을 입고 있는 인체와 무관하게 드러나는 보편적 가치이다. 김혜영 (2000). 의복에서의 탈구조적 공간과 가시성에 대한 연구. 복식, 50(4), pp. 6-11.
- 13) 조성민 (2003). 패션쇼 전용관 계획안.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5-17.
- 14) 신상옥 (1990). 서양복식사. 수학사, p. 101.
- 15) 김정숙. 앞의 책, p. 38.
- 16) 대한건축학회. 앞의 책, p. 276.
- 17) 위의 책, pp. 276-277.
- 18) Fritjof Capra, 이성범 외 역 (1985). *The turning point*. 범양사, p. 46.

- 19) 배재민 (2001). 해체주의건축에 적용된 현대과학이론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8-19.
- 20) 이진경 (2002). 근대적 시·공간의 탄생. 푸른숲, p. 241.
- 21) 송민구 (1991). 현대건축의 배경. 산업도서, p. 88.
- 22) 대한건축학회. 앞의 책, pp. 115-116.
- 23) 김도식 (1997). 모더니즘 건축의 합리성의 특성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건축도시환경연구소. 건축도시환경연구, 5, p. 44.
- 24) Van de Ven, 정진원 역 (1998). 건축공간론. 기문당, p. 236.
- 25) 김영태, 김성우 (1996). 모더니즘 건축의 추상 개념 및 원리에 관한 연구. 영남대공업기술연구소 논문집, 24(2), p. 26.
- 26) Chris Jenks (1995). *Visual cultur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p. 3.
- 27) 대한건축학회. 앞의 책, p. 116.
- 28) 김현화 (1999). 20세기 미술사. 한길아트, p. 107.
- 29) 대한건축학회. 앞의 책, p. 116.
- 30) Eva Forgacs, John Batki (1991). *The Bauhaus Idea and Bauhaus politics*. Budapest, London, New York : Central European Univ. Press, p. 165.
- 31) 안수현 (1996). 바우하우스 조형운동이 복식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90.
- 32) 엄소희, 김문숙 (2000). 현대복식의 패러다임. 경춘사, p. 99.
- 33) Max von Boehn, 천미수 역 (2000). 패션의 역사 II. 한길아트, p. 372.
- 34) Valerie Mendes, Amy de la Haye, 김정은 역 (2003). 20세기 패션. 시공사, p. 78.
- 35) 위의 책, p. 80.
- 36) 정홍숙 (1987). 복식 문화사. 교문사, p. 275.
- 37) 이정순 (1982). 현대 복식미의 변천 과정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 논문집, 24, p. 406.
- 38) Elizabeth Rouse, 이재한 역 (2003). 코르셋에서 핑크까지. 시지락, pp. 273-274.
- 39) Ingrid Loschek, 이재원 역 (2002). 여성들은 다시 가슴을 높이기 시작했다. 한길아트, p. 137.